

##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 영산강 섬진강 유역 물관리

물은 식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이며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써 물을 천부의 재산이라 한다. 재산은 경제 원칙에 따라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일차 산업인 농업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역대 통치자 중에서 물관리 계획추진을 질한 통지 자료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은 환경 철학에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며 생활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4대강 하천의 관리는 하천별로 나눈 환경에서 관리하는 데 영산강 환경에서 섬진강과 영산강 하천을 관리한다. 호남에는 영산강과 섬진강 있으며 호남의 젖줄이다.

물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호남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크다.

광주광역시청 근처에 영산강 환경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으며 영산강 환경에서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광주·전남의 상수도인 생활용수 관리를 하고 있다.

섬진강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보존되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으며, 광주시 상수원으로 유입 이용되고, 주변 경관이 이를 더워 하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영산강물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로부터 유입되는 생활 폐수 때문에 오염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 승촌보와 죽산보를 막아 물을 저장하고 있으나 고여 있는 물관리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영산강과 섬진강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통합 물관리의 적용과 실현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물관리 기관 등 유역 내 다양한 물관리 주체 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물과 관련하여 함께 풀어 나아가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있다.

영산강은 수질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영산강은 전국 5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이는 오염원 유입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영산강 본류 유량의 60% 이상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이며,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상 비점오염 부하가 높아 수질 관리 여건도 열악하다.

영산강의 수질은 최상류에서 광주시 경계까지(BOD 기준) 약간 좋음(1b) ~ 보통(III) 수준을 유지하며,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광주천 합류 이후 구간에서 약간 나쁨(IV)까지 떨어진다.

우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영산강을 지속해서 이용하고 보전해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승촌보와 죽산보 물관리와 이용에 협약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섬진강에서 취수한 물의 80% 이상은 유역 외부로 물을 공급함에 따라, 섬진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섬진강 본류로 더욱 많은 유량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지역의 특산물인 재

첩 생산량의 감소가 유역 외 물이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원으로서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여 사용해야 하는 통합 물관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통합 물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 물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며 준비를 마쳤다. 올해 영·섬 유역 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유역 내 물 관리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영·섬 유역 물관리 위원회 및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호남의 젖줄이며 천부의 재산인 섬진강과 영산강의 물관리를 잘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비중이 크다.

물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할 일이 많다. 물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환경청은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욱 창의력을 발휘해 선진국 물관리 체계를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소중한 우리 기록을 지키는 법 '지문사전등록제'

우리나라는 매년 2만 건에 이르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교외 볼나들 이를 가는 5, 6월에 가장 많은 실종신고가 들어온다. 이에 경찰은 초기에 실종수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실종신고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어 경찰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

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문 사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평균 1시간 안팎으로 찾는데 반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 8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매환자나 지적·자폐장애인의 사전등록율은 현저히 낮

다. 2018년 말까지 관내 치매환자 사전지문등록 대상은 총 5만 8,090 명이지만 이 가운데 16.6%인 9,661명만 접수됐다. 사전등록율이 저조한 원인은 보호자들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아동 대상 제도'로만 인식하거나, 치매·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하여 실종자를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과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 할 수 있고 또 안전Dream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심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김지현/원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첩 생산량의 감소가 유역 외 물이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원으로서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여 사용해야 하는 통합 물관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통합 물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 물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며 준비를 마쳤다. 올해 영·섬 유역 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유역 내 물 관리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영·섬 유역 물관리 위원회 및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호남의 젖줄이며 천부의 재산인 섬진강과 영산강의 물관리를 잘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비중이 크다.

물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할 일이 많다. 물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환경청은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욱 창의력을 발휘해 선진국 물관리 체계를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 社說

## 새 외교·안보라인에 거는 기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상은 정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정상회담에 확실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실질적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이벤트성 회담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은 우리 쪽 코트에 있으니 김정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주도권 확인의 성격도 짚어 보인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 방한하는 시점에 맞춰 카운터파트인 최부상의 공개담화가 나온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건 대표에게 비공식 채널로 전해도 될 말을 대내외에 선제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최 부상의 발언이 무언가 준비해서 오라는 암브이자 주문이라면 비건 대표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앤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함께 방한길에 올라 7일부터 시흘간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전략 대화를 갖는 것을 비롯,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한반도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그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장기 표류해온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인 북미 관계는 물론 역주행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리셋팅해서 본래의 궤도에 다시 옮겨놓을지를 놓고 정교한 계획을 짜야 한다. 수령에 빠진 남북 관계를 먼저 복원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 북미간 중재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뒤, 남북관계 복원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후 관계의 교통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속도감 있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새로 출범한 외교·안보라인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 호남신문

##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기길 16-1  
Tel (02) 2238-0003

##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기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띠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